

출판물에 활용된 북아트의 사례 연구

-한정 본 출판물을 중심으로-

Practical used Bookarts by Publication and Various Case

-Centering Around Limited Edition Publishing-

주저자 : 김경희

수원여자대학 그래픽디자인과 교수

Kim, Kyung Hee

Suwon Women's College Department of Graphic Design Professor

공동저자 : 김나래

사우스햄프턴대학교 북 아트 박사과정

Kim, Na Rea

University of Spathampton, PHD Book arts

* 이 논문은 2008년도 수원여자대학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목차

1. 서론

- 1-1. 연구목적
- 1-2. 연구방법 및 범위

2. Bookarts의 개념 및 발생

3. Bookarts의 형태적 구조

- 3-1. 폴드(Fold)
- 3-2. 코덱스(Codex)
- 3-3. 팬(Fan)
- 3-4. 블라인드(Blind)

4. 한정 본 출판물에서의 북아트 활용사례

- 4-1. 북아트의 구조에 따른 활용사례
 - 4-1-1. 코덱스 (Codex)
 - 4-1-2. 폴드 (Fold)
 - 4-1-3. 팬 (Fan)
 - 4-1-4. 블라인드 (Blind)
- 4-2. 북아트의 기법과 재료를 활용한 사례
- 4-3. 북아트를 이용한 한정 본 출판물의 장·단점

5. 결론

6. 참고문헌

(요약)

본 논문은 현대에 새롭게 등장한 한정 본 출판물을 조사 분석하여 출판물에서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대의 출판물은 책의 수명단축, 전자책의 등장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 책의 획일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한정 본 출판물은 북아트의 아이디어와 소재를 적극 활용하여 독창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되어지고 있다.

북아트란 근대에 등장한 새로운 미술사조이며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플럭서스 아트(Fluxus Art)에서 그 명맥을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예술 장르로서 북아트의 등장은 점차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대량복제에 반기를 들며 나타난 희소성의 복원에 대한 소망이자 향수와 인간미를 느껴보고 싶은 고독한 현대인의 욕구이다.

북아트는 크게 폴드(Fold), 코덱스(Codex), 팬(Fan), 블라인드(Blind)라는 4가지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두, 세 가지를 결합하여 1,000여 가지의 새로운 구조를 만든다. 이러한 북아트의 구조는 한정 본 출판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북아트의 기법과 재료를 활용한 한정 본 출판물 또한 많이 등장하였고 판화, 실/리본과 같은 입체적인 소재, 페이퍼 커팅, 팝업 등이 그것이다.

북아트가 출판물에 활용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표현의 다양성, 책의 희소성, 아티스트의 독창성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북아트를 이용한 한정 본 출판물의 장점은 소장가치, 다른 장르와의 교류, 출판물의 고급화,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등이다. 그러나 비싼 가격, 한시적 판매기간, 물류 유통 경로상의 어려움, 독자의 계층화와 서열화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새로운 소재 개발 및 고급화를 이루어 가격의 대중화를 이루고 둘째, 출판 전문 인력을 보다 많이 배출 하여야 하며 셋째, 합리적인 가격 형성으로 영세화된 제본시장을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넷째, 예술가들의 장르 간 교류를 통하여 출판시장을 개척,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안이 이루어진다면 북아트를 이용한 한정 본 출판물의 다양성, 독창성, 희소성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 북아트, 출판물, 한정 본 출판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a new alternative for publication by researching and analysing limited editions.

Contemporary publication has various problems such as shortend lives of books, uncompetitive prices due to emersion of e-books, and standarization of books, etc. As an alternative, the limited editions are developed creatively and variously with idea and materials adapted from bookarts.

Bookarts is a new concept of arts emerged in modern times, and we can find its root in the Fluxus Art in 1960's in U.S.A. Today, the rise of bookarts as a genre of arts means that there are hopes and nostalgia for restoration of rarity against mass reprinting in highly industrialized societies, and that people have demand for a human touch as they are lonely.

Generally bookarts are divided into 4 structures - Fold,

Codex, Fan, Blind - and we can create more than 1000 structures by combining those 2-3 structures. These structures of bookarts are utilized actively in the limited editions. There are many limited editions utilized with methods and materials of bookarts, and the examples are printings, 3-D materials such as threads/ribbons, paper cutting and pop-up, etc.

The anticipated effects of bookarts, when it is used for publication, is the diversity of expression, the rarity of books, and the originality of artists, etc.

The strength of the limited editions lies in the value for collection, interchanges among genres, high class quality of publication, and competitiveness in broad market, etc. However, there are also problems such as expensive prices, limited purchase periods, distribution difficulties, and classification of readers' classes. To improve these problems; firstly we need popularized prices by developing new and qualified materials. Secondly, there should be more expert publishers. Thirdly the small scale binding market should be improved by reasonable prices. Finally the publication market should be cultivated and developed through the interchanges among genres and among artists. If improved, it is expected that the value of diversity, originality, and rarity of the limited edition will be much higher.

Keyword : Bookarts, Publication, Limited editio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해 납본된 자료를 집계한 결과 2008년 신간도서의 발행량은 총 4만 3,099종(만화포함)이며, 발행부수는 1억 651만 5,675부로 조사되었다.¹⁾ 이처럼 많은 양의 책이 매 해 출판되고 있고,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전자책의 발행도 증가되고 있는 현대에 새롭게 등장한 한정 본 출판물을 조사, 분석하여 출판물에서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현대의 출판물은 다양한 인쇄기술의 발달로 원하는 양의 책을 빠른 시일 안에 볼 수 있게 되었고, 저렴한 가격으로 폭 넓은 대중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통의 발달로 어느 곳에서나 서점을 이

용하여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의 대량생산 출판 책들은 많은 단점을 보인다.

첫째, 책의 수명이 짧아졌다. 유행에 따른 트렌드 북의 등장으로 보통 3, 4년 후 절판되어 더 이상 서점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책이 늘어나게 되었다.

둘째, 전자책(e-book)의 등장으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었다. 전자책과 출판책의 가격차이가 약 8배 이상의 차이가 남으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셋째, 책의 획일화이다. 대형서점에서 보이는 많은 책들이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어 몰개성적이고 독창적이지 않다. 이는 책의 개성을 고려하지 않아 소비자로 하여금 소장가치를 느끼기 어렵게 한다.

17세기말 인쇄의 대량생산 기술의 발달로 인해 책의 양이 급속도로 늘어났지만 품질은 조약해지고 책의 미적 가치는 하락하게 되었다. 이에 반기를 든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가 기계화된 대량생산물에 대한 대안으로 미술공예운동을 제시하였다. 그는 중세의 장인의 정신을 이어받아 수공예(Hand Craft)를 이용한 책을 만드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는데 현대의 출판물도 그러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그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북아트를 이용한 한정 본 출판물이다.



[사진1] 윌리엄 모리스의 책²⁾

북아트란 근대에 등장한 새로운 미술사조로서 사전적인 의미로는 문학과 미술이 결합한 형태의 예술이다. 프랑스어로는 '미술가의 책(livre d'artiste)'이라고도 한다.³⁾ 현대에서 북아트는 예술가들이 작품의 소재로 책을 사용하면서 시작되었고 책의 역사와 결합되면서 오늘날 하나의 미술장르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북아트는 한정 본 출판물의 다양성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북아트의 아이디어와 소재가 출판물에 적극 활용되어 한정 본 출판물의 다양성과 독창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

1) 김경배기자, 독서신문, 2009년 1월 27일

2) 윌리엄모리스, 윌리엄모리스 박물관 소장, 파주 헤이리 마을

3) © 두산백과사전 EnCyber &EnCyber.com

다.

따라서 본 논문은 출판물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북아트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한정 본 출판물을 중심으로 조사, 연구하였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출판된 국내·외의 북아트를 이용한 한정 본 출판물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디자인 서적 및 출판물 그리고 웹 사이트(Web Site) 등 다양하게 소통되고 있는 자료들을 이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4년부터 시작하였고, 본격적인 연구는 2008년 6월부터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북아트의 개념과 역사에 대하여 조사하고 북아트의 여러 가지 구조 중 대표적인 4가지 구조와 그것을 이용한 한정 본 출판물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그 4가지 구조가 한정 본 출판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아트의 기법과 재료를 활용한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현재 한정 본 출판물의 장, 단점을 도출하여 보다 개선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한정 본 출판물 시장의 확대와 보급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착시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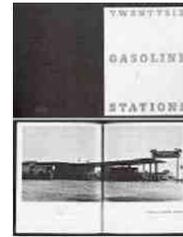
2. Bookarts의 개념 및 발생

북아트는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플럭서스 아트(Fluxus Art)에서 그 명맥을 찾아볼 수 있다. 1960년대 아티스트 북이 등장했을 때 많은 작품들을 가능한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대량 생산)으로, 논지를 전파하거나 팜플렛처럼 값싸게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북아트를 하였다. 이는 아티스트 북을 가장 저렴하고 값싼 대중 예술이라고 규정 지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당시 컴퓨터가 일반화되지 않고 인쇄 기술도 오늘처럼 발달되지 않은 시점에서 인쇄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상당히 진보적이고 앞서 가는 모습이었다.

에드가 루스차가 주유소에 사람들이 밀려드는 모습을 흑백 스냅 사진으로 찍어 인쇄한 '26개 주유소(Twenty-six Gasoline Station 1962)'는 문학적이거나 그래픽적인 편집을 배제하고 무제한적인 대량 생산을 창조해 내었다.

26이란 숫자는 알파벳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

주의(Consumerism)에 대항하는 팜플렛으로써의 기능을 나타낸다. [사진2]



[사진2] 26개 주유소

이러한 관점에서 '26개 주유소'는 마르셀 뒤샹이 시도했던, 오리지널 아트(정통 예술)를 기성품(레디메이드)으로 대체시켜버렸던 예술계의 혁명파도 무관하지 않다.⁴⁾ 또한 60년대 북아트의 근원인 플럭서스 아트의 아티스트 디크 히긴스(Dick Higgins)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티스트 북은 예술과 인쇄의 중간 매개체(Intermedia)로써 예술의 모든 모드를 독특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고 있다'⁵⁾고 했다. 어떤 경우, 아티스트들은 책 모양(Form)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혼합적인 재료와 다양한 책의 특성을 이용하여 보다 섬세하고 복잡하게 작품을 제작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 아티스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서 전부 아티스트 북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다.

최초의 북아트 전시는 1972년 런던의 니젤 그린우드 갤러리에서 개최된 것이 본격화 된 북아트 그룹 전이었다. 참여 작가로는 헬렌 더글라스, 텔퍼 스톡스 등 그 당시 젊고, 갓 대학을 졸업한 신진작가들로서 책이라는 하나의 포맷을 가지고 작업한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였다.⁶⁾

1973년 미국 필라델피아 무어 미술대학에서 '미술가들의 책'이란 전시를 기획한 다이안 밴더립과 뉴욕 근대 미술관 사서인 클라이브 필포드는 스튜디오 인터내셔널 7, 8월호 리뷰 칼럼에 '북아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⁷⁾

또한 1974년 리차드 민스키에 의해 창립된 C.B.A (Center for Bookarts)협회는 지금도 뉴욕에 있으면서 북아트의 대중화와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북아트는 유일 본, 한정 본, 무한정 본 등으로 나뉘어 다양한 작가들이 판화, 인쇄, 디자인, 일러스트 그리고 사진기법 등을 활용하여 작업해 오고 있다. 북아트의 주제는 주로 여행이나 가족의 이야기 등 개인적인

4) 김나래, 북아트 교실2, 도서출판 종이나라, 2007, p14

5) Wayne Baerwaldt, Under the influence of fluxus, PIUG IN ING, 1991, p12

6) 북 프레스 출판부, 북 플러스 아트, 북 프레스, 2004, p18

7) 김나래, 아름다운 책 만들기, 임프레스 출판사, 2003, p16

주제에서부터 사회적인 주요 이슈를 쟁점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오늘날 예술장르로써 북아트의 등장은 점차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대량복제에 대해 반기를 들며 수공으로 직접 책을 제작함으로써 책의 값어치를 높이고 희소성을 복원하려는 시도이자, 지난날 시절의 향수와 인간미를 느껴보고 싶은 고독한 현대인의 욕구에도 어느 정도 힘입은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Bookarts의 형태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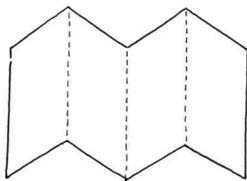
책은 마치 건축 공간과 같이 사방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형상을 보여준다. 북아트는 책의 구조와 내용의 조화가 중요하다. 북아트에서는 내용, 재료(물성), 구조 등이 삼박자를 이룬다. 즉, 읽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만지는 즐거움 이라고 할 수 있다.

북아트 구조의 기본은 폴드(Fold), 코덱스(Codex), 팬(Fan), 블라인드(Blind)등 네 가지이다. 그 중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결합하여 1,000여 가지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중 북아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타일은 폴드 방식(동양식 병풍)이지만, 출판에서는 페이지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코덱스 스타일을 선호한다.⁸⁾

3.1. 폴드(Fold)

폴드는 다른 말로 아코디언(Accordion) 스타일, 동양식 병풍 스타일, 컨서티나(Concertina:아코디언과 비슷하게 생긴 악기)스타일이라고 한다. 폴드 방식은 접기 용이하고, 내지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북아트에서 많이 응용된다.

내용의 연결성(Sequence) 즉, 연속적인 이미지를 나타낼 때 한 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폴드로 접혀진 책은 페이지 별로 차례로 돌려지거나 동시에 전시할 수 있다.⁹⁾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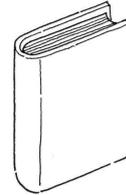
[그림1] 폴드(Fold)

8) 김나래, 아름다운 책 만들기, 임프레스 출판사, 2003, p67

9) 박은경, 시각적 오브제로써 북아트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5, p12

3.2. 코덱스(Co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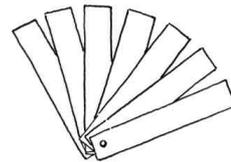
코덱스는 현재 출판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로써, BC 2세기 유럽의 기독교 전파와 더불어 쓰이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쓰이고 있다. 예전에는 인쇄된 종이를 한 묶음씩 실을 이용해 꿰매는 수작업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제본기계 기술의 발달로 양장제본 혹은 무선제본 등 기계제본 방식과 전통적인 손 제본 방식이 공존한다.¹⁰⁾[그림2]



[그림2] 코덱스(Codex)

3.3. 팬(F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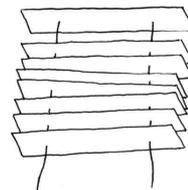
팬은 부채라는 뜻으로 복합적인 바인딩이 될 수 있다. 팬 방식은 한 장으로 공통되게, 각 끝에서 묶을 수 있게 제본되는 방식이다. 북아트에서는 사용빈도가 낮으나, 내용의 연속성을 한 장에서 보여줄 때 사용하면 효율적인 방식이다.¹¹⁾ [그림3]



[그림3] 팬(Fan)

3.4. 블라인드(Blind)

창문을 가릴 때 사용하는 블라인드와 같은 명칭으로 블라인드 바인딩의 커버는 첫 번째 블라인드 살이 커버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팬(부채)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¹²⁾[그림4]



[그림4] 블라인드(Blind)

10) 박은경, 같은 책, 이화여자대학교, 2005, p14

11) 박은경, 같은 책, 이화여자대학교, 2005, p13

12) 박은경, 같은 책, 이화여자대학교, 2005, p15

4. 한정 본 출판물에서의 북아트 활용 사례

4.1. 북아트의 구조에 따른 활용사례

출판물이 다양화가 되어가면서 북아트의 구조를 이용한 다양하고 개성이 있는 출판물이 등장하였다. 그 중 북아트의 기본 구조인 코덱스, 폴드, 팬, 블라인드를 이용한 한정 본 출판물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4.1.1. 코덱스 (Codex)

[사진3] '낙엽 지는 새'¹³⁾는 가수 서태지의 디자인 컨셉 북이다. 책의 주인공인 서태지를 한 마리의 새로 표현하여 꿈과 이상이라는 메시지를 표현하였다. 일러스트레이터 강지연의 작업으로 모두 200여 컷 이상의 일러스트를 사용하였으며 통일된 레이아웃(Layout)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코덱스 출판물과는 다르게 각 페이지마다 다른 레이아웃을 적용하였다. 초판 2만부가 발매 전에 절판이 되어 2쇄를 인쇄해야 할 만큼 북아트가 대중적인 인기를 받은 좋은 예이며, '서태지 마니아'를 위한 소장 가치가 높은 책이다. 이 책은 2쇄 인쇄를 마지막으로 절판하였으므로 한정 본의 범주에 포함된다.



[사진3] 서태지 컴퍼니의 '낙엽 지는 새'

[사진4] 작품 '둘·어우름'은 북아트 출판물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601비상'의 작품으로 소통과 교감의 사진과 함께 현대인이 있고 살았던 어우름의 의미 찾기를 시도한다. 또한 책의 한가운데에는 한국의 통일 염원을 담기도 했다. '둘·어우름'은 우리 동네의 일상 속 이야기를 한국적 미학으로 승화¹⁴⁾시킨 이미지를 코덱스로 엮은 책이다.



[사진4] 601비상의 '둘·어우름'

13) 서태지 컴퍼니, 낙엽지는 새, 랜덤하우스, 2005

14) 601비상, 둘. 어우름, 601비상. 2007

출처: <http://www.601bisa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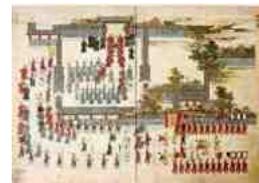
[사진5]는 미국의 비저너리 출판사의 '티파니'라는 한정 본으로 비저너리사는 콜렉터들을 위해 매 호 4천부만을 출간해 개성 있는 책을 만든다. 각 책에는 에디션 넘버가 스탬프로 찍혀져 있고, 각 호마다 색다른 구성과 아이디어로 고정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티파니'는 실제 티파니 보석 상점의 이야기를 책으로 구성 한 것으로 티파니를 상징하는 보석을 책에 매달아 여성들의 취향과 기호에 적합하도록 기획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티파니가 보석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청록색 주머니와 상자에 책을 담아 아이덴티티(Identity)를 살리고 소장품으로의 가치를 높였다.



[사진5] 비저너리 출판사의 '티파니'

4.1.2. 폴드 (Fold)

[사진6] '왕세자입학도'의 영인본¹⁵⁾은 기술과 내용의 두 가지 차원 모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원본의 크기와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그림의 색깔과 글씨를 먹과 천연물감을 사용해 인쇄하였으며, 영인에 필요한 한지(韓紙)도 원본 재질을 분석해 수제 한지를 주문 제작하였다. 이것은 외형을 베끼는 방식의 영인이 아니라 원본의 겉과 속, 재료, 방식까지도 완전하게 담아 제작¹⁶⁾한 폴드 형식의 전적(典籍)문화재 영인본이다.



[사진6] 왕세자입학도¹⁷⁾

[사진7]은 김나래 작가의 시카고 이민가족사를 바탕으로 엮은 폴드 형식의 책으로 1993년부터 2007년까지의 주요 이야기를 시카고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담았다.

이 형식은 기본적인 폴드 구조에 코덱스를 응용시

15) 원본을 사진이나 기타 과학적 방법으로 복제한 인쇄물, 네이버 국어사전

16) 문화재신문, 2005년 12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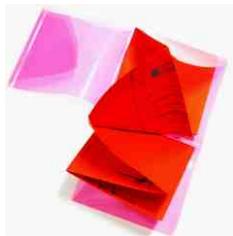
17) 문화재청, 한영우, 박정혜, 이정섭공저, 왕세자입학도, 안그라픽스, 2006,

킨 것으로 350부 한정 출판되었다.



[사진7] 김나래의 '나의 가족이야기'¹⁸⁾

[사진8]은 독일에서 출간된 책으로 폴드 응용 구조인 포스터접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커버는 붉은 색이 들어간 유연한 비닐커버이고, 붉은 종이에 1도 오프셋인쇄로 제작하였다. 이 구조는 호기심을 유도하고 페이지를 펼치며 궁금증을 해소하게 하는데 적합한 구조이며 작지만 강렬한 느낌을 주는 책이다.



[사진8] Funky Sabbath

4.1.3. 팬 (Fan)

[사진9]은 영국의 더 파트너스 (The Partners)의 브로슈어이다. 'HGV'라는 PVC회사의 특징을 살려 자(Ruler)를 이용한 팬 구조로 제작되었다. 종이 소재를 벗어나 회사의 주 제품인 PVC를 이용하여 기능성과 정보성을 동시에 표현하였다. 자의 한 쪽 끝 부분을 고정시켜 부채처럼 펴 보면서 내용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사진9] 'HGV' 제품 브로슈어

[사진10]는 영국 주얼리 회사의 카달록으로 원형 페이지 안에 섬세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팬 구조의 책이다. 화려한 색감과 다양한 인쇄기법을 이용하여 주얼리라는 제품 컨셉에 어울리도록 제작하였다. 스크류 포스트(Screw Post)로 바인딩 한 것이 차별화된 특징이다.

18) 김나래, 나의 가족이야기, 북 프레스, 2007



[사진10] '영국 주얼리' 회사의 카달록

[사진11]은 팬 구조와 블라인드구조가 접목된 책으로 금속성 알루미늄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한정 출판물이다.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통속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함축적인 메시지를 기호화하여 새롭게 표현하였다.



[사진11] 케빈 오즈번의 '벡터 회전'¹⁹⁾

4.1.4. 블라인드 (Blind)

[사진12]은 작가 스콧 매카니의 작품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기억상실증에 걸린 형에 대한 연민과 병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었다. 형의 하루 일상과 뇌의 구조를 대비되도록 편집하였다. 문장이 아닌 이미지와 단어로 간결하게 표현되었지만 블라인드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전체를 한 눈에 인지할 수 있으며 입체적인 계단 방식으로 병에 대한 긴장감을 표현하였다.



[사진12] 스콧 매카니의 '기억 상실'²⁰⁾

[사진13]는 한 편의 시로 구성된 블라인드 방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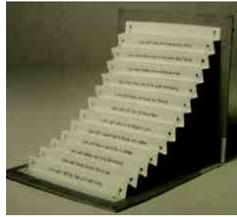
19) 키스스미스, 키스스미스의 북아트, 열린책들, 2004, p48

팬 스타일로 25부 한정본이다. 광택이 나는 금속 재질에 대리석 무늬와 텍스트를 오프셋 인쇄했다.

20) 키스스미스, 같은 책, 열린 책들, 2004, p143

500부를 오프셋 인쇄한 이 책은 블라인드와 폴드 북 방식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끈으로 조절하면 보는 각도가 달라진다. 책은 평면으로는 열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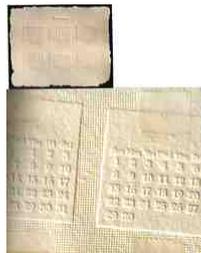
책으로 커버는 하드커버로 되어있다. 실로 내지와 연결이 되어있어서 커버를 90도 각도로 세우면 블라인드 형식으로 펼쳐지고, 실을 당기면 책이 닫힌다. 이미지 없이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이 구조는 간결미와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



[사진13] 블라인드 구조의 시집

4.2. 북아트의 기법과 재료를 활용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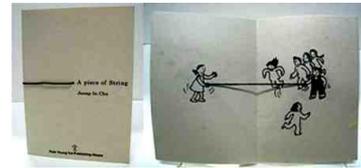
[사진14]은 일본 아키오 오쿠마라라는 디자인 회사의 달력이다. 이 회사는 브로슈어, 카달록, 카드 그리고 초대장 등을 오프셋 인쇄에서 벗어난 다양한 기법과 재료를 활용하여 개성이 있는 인쇄물 및 출판물을 제작하고 있다. 아래 사진의 달력은 수제 종이 위에 잉크를 입히지 않고 활판인쇄기로 강하게 눌러 숫자가 엠보싱 처리가 되도록 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북아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판화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달력에서 텍스트는 색이 입혀져야 한다는 통념을 깨고 활자 인쇄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의의가 있다.



[사진14] 아키오 오쿠마라의 달력

[사진15]는 차정인 작가의 '실' (A Piece of String)²¹⁾이라는 책이다. 여기에서 실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의 도구로써 사용되었으며, 실크스크린기법을 이용하였다. 실과 실크스크린이라는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여 대량생산된 책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질감을 살렸으며 한정 본으로 출시되어 독자로 하여금 재미와 흥미를 유발시킨다.

21) 차정인. 실. 박영률 출판, 2003



[사진15] 차정인의 '실'

스튜디오 바프(Studio Baf)에서 제작된 [사진16]는 행위예술가 이음이 개인전 '빨간 블라우스'를 위한 작품집이다. 빨간 리본을 붙여 책을 열면 가운데에 뚫린 빨간색 창문을 통해 관객이 직접 이 책에 참여하게 한 '인터랙션'(Interaction)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험한 책이다.²²⁾ 아일렛 펀치로 표지에 구멍을 뚫어 붉은 색 망사 리본으로 매듭지어 여성의 블라우스를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전시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컨셉 북이라고 할 수 있다. 종이 이외에도 빨간 리본을 수작업으로 엮어 소재의 다양성을 시도한 점을 볼 수 있다.



[사진16] 이음의 '빨간 블라우스'

[사진17]은 중국에서 출간 된 페이퍼 커팅 책이다. 페이퍼 커팅이란 종이를 칼이나 가위로 오려내어 이미지를 만드는 기법으로 북아트에서 많이 사용되며 정교함과 섬세함이 요구되는 기술이다. 이는 반 입체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래 책의 내용은 왼쪽 페이지는 중국의 12지를 그린 수묵채색화로 표현하였고 맞은편 오른쪽 페이지는 같은 이미지를 섬세한 페이퍼 커팅을 한 후에 수묵 채색하여 화려함을 더하였다. 본문은 영문과 중국어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중국의 페이퍼 커팅 전문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사진17] Paper cut in china-The twelve symbol animals

22) 이음 작, 빨간 블라우스, studio baf, 1995, 출처: <http://www.baf.co.kr/>

[사진18]은 '수영하는 폴 존슨'(Merman Paul Johnson)이라는 작품으로 오프셋 인쇄 후 팝업으로 접어서 페이퍼 커팅을 한 종이 건축²³⁾이다. 3D입체로 표현하여 평면적인 종이책과는 차원이 다른 느낌을 주고 보는 이로 하여금 경이롭게 만든다. 폴 존슨은 지난 20여 년간 영국에서 어린이 북아트 교육과 팝업 북을 연구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기법의 중복 사용은 작품성을 한층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진18] 폴 존슨의 '수영하는 폴 존슨'

이렇듯 다양한 한정 본들은 수작업 보다는 대부분 출판의 힘을 빌려 제작되어 지고 있다. 구조면에서는 코텍스, 폴드, 팬, 블라인드 등의 북아트 구조가 응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응용구조가 활용되고 있다. 재료에서는 일반 종이이외에 특수지, 필름지 등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기법 면에서는 페이퍼 커팅, 팝업, 활판인쇄 등이 출판물에 실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재료와 기법이 꾸준히 연구되어지고 있다.

4.3. 북아트를 이용한 한정 본 출판물의 장·단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정 본 출판물들은 북아트의 다양한 구조, 기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개성 있고 창의적인 출판시장의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한정 본 출판물의 장점은 첫째, 소장가치를 지닌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서 출판시장을 새롭게 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출판물의 한계에서 벗어나 다른 장르와의 교류도 가능하게 한다. 북 디자인작업에 참여하여 장르간의 벽을 허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사진19]



[사진19] 민음사 '세계문학전집'²⁴⁾

23) '종이 건축'이라는 말은 폴 존슨이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소개하는 인터뷰에서 사용한 말이다.

셋째, 특정 독자층을 확보하여 출판물의 고급화를 지향한다. 획일화된 출판 시장에 독창적인 책의 등장으로 세분화된 고객층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다.

넷째, 해외의 출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수준 있는 한정 본 출판물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시장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정 본 출판물이 국내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데 이유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격이 일반 출판물에 비하여 비싸다.

둘째, 판매기한이 한시적이어서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구입이 어렵다.

셋째, 물류 유통 경로 상 포장 및 파손이 우려되어 지역성이 떨어지고 특정 매장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실제 한정 본 출판물은 대부분 수도권의 대형 서점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넷째, 독자의 계층화와 서열화를 조장한다. 이유는 일부 마니아층을 위한 판매 전략으로 책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재화(財化)로서의 가치만 추구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오늘날 우리는 정보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책을 이용하기 보다는 전자책, 인터넷 혹은 핸드폰을 이용한다. 이에 일부 사람들은 종이의 존 폐에 관하여 우려하였으나 종이의 수요량은 이와는 달리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의 전자텍스트에 지친 현대인들이 종이에서 오는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예술장르로써 북아트의 등장은 책의 값어치를 높이고 희소성을 복원하려는 시도이자, 지난 시절의 향수와 인간미를 느껴보고 싶은 고독한 현대인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북아트가 출판물에 활용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표현의 다양성이다. 인쇄로만 이루어진 기존의 책에서 벗어나 실, 리본과 같은 다양한 소재와 여러 가지 구조,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출판물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책의 다양화를 시도할 수 있다.

또한, 책의 희소성을 들 수 있다. 정보 습득을 위한 도구로서의 책에서 벗어나 예술성을 가진 소장품

24) 이상봉 외 9인. 세계문학전집. 민음사. 2009

민음사의 2009 세계문학전집은 패션디자이너 등 각계각층의 예술인들이 표지디자이너로 참여하여 장르간의 폭을 넓혔다. 이 전집은 2천 세트 한정본 출판물이다.

으로써 책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티스트의 독창성이다. 북아트는 독자 중심이 아닌 작가 중심의 디자인으로 아티스트의 독창성을 해치지 않고 출판할 수 있다. 아티스트는 자신이 고려한 컨셉, 내용, 소재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 출판물에서도 예술 활동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렇듯 북아트는 한정 본 출판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높은 가격, 한시적 판매, 물류/유통의 문제, 지역의 한정성, 독자의 계층화와 서열화 같은 문제점 또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새로운 소재 개발 즉, 커버 및 내지 등의 소재를 연구하고 보급화하여 가격의 대중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쇄용 한지(韓紙)의 경우 한 연(500장)의 가격이 약 500만원²⁵⁾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보급형 책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한지를 개발한다면 보다 다양한 출판물에서 인쇄용 한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출판 전문 인력을 보다 많이 배출하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출판 관련 교육은 대부분 편집 프로그램을 익히고 일반 출판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다. 현재 북아트 및 북바인딩 등을 교육하는 학교도 있으나 아직 그 수가 미미한 편이므로, 다양한 책을 출판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이에 편집 디자인뿐만이 아닌 소재 연구, 페이퍼 디자이너, 북 피디(Book Producer)나 북 코디네이터와 같은 다양한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출판시장의 다양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세분화된 구체적인 전문 인력 배출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출판 시장을 확대시키고 나아가 책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합리적인 가격 형성으로 영세화된 제본시장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국내의 제본소들은 소규모 영세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출판물의 질적 저하를 부르고 획일화된 제본 방식만을 고수 하고 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들이 참여하여 제본시장의 다양화를 모색하여 가격의 세분화를 형성하여야 한다.

넷째, 예술가들이 출판 작업에 참여하여 장르간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아이디어와 소재 및 출판 영역의 확대에 의해 또 다

른 새로운 장르의 출판시장의 개척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이루어진다면 출판물의 다양성, 독창성, 희소성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연구는 실질적인 출판물의 개발 및 실행을 통하여 북아트를 이용한 한정 본 출판물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6. 참고문헌

- 601비상편집부. (2007). 둘·어우름. 601비상
- 김나래. (2003). 북아트 아름다운 책 만들기. 임 프레스 출판사
- 키스 스미스. (2004). 키스 스미스의 북아트 .열린책들
- 김나래. (2003). 아름다운 책 만들기. 임프레스출판사
- 김나래. (2007). 북아트 교실1. 도서출판 종이나라
- 김나래. (2007). 북아트 교실2 도서출판 종이나라
- 메기 출판부. (1998). Artists' Book Year Book. Meggi Press
- 박은경. (2005). 시각적 오브제로써 북아트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백순덕. (2006). 책을 지키는 예술·예술제본. 안그라픽스
- 북 프레스 디자인 기획. (2005). 낙엽 지는 새. 랜덤하우스 중앙출간
- 순조17년. (2006). 왕세자입학도. 안그라픽스
- 이음 . (1995). 빨간 블라우스. Studio Baf
- 스콧 매카니. (1998). 기억 상실. 비주얼 스테디스 워크숍
- 차정인. (2003). 실. 박영률 출판
- 최영주. (2002). 지금쯤. 창작과 비평사출간
- 홍승표. (2005). 인두와. 모자니.
- 줄리오 페라리. (2006). 형태와 색채의 양식. 타라 안티쿠스 출간
- 카시와기 히로시. (1992). 20세기의 디자인. 조형교육
- 이상봉 외 9인. (2009). 세계문학전집. 민음사
- Renee Riese Hurbert & Judd Hurbertthe. (1999).
- Cutting Edge of Reading Artist's Books. 그라나리 출판사(Granary Books)
- Wayne Baerwaldt. (1991). Under the influence of fluxus. PIUG IN ING
- 작가 미상. Paper cut in china-The twelve symbol animals
- Johanna Drukerthe. (1996). Century of Aritists' Books. Granary Books
- James Bettley. (2001). The Art of the Book.V&A

25) 2009년 현재 유통되는 가격